봉선사, '능엄전문학당' 개설…1기 성황

4월 13일 '운하당'서 첫 강의
승가대학원장 정원 스님 강사
스님들 교육 열기에 관심 고조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스님들을 위한 '봉선사 능엄전문학당'을 개설해 호응을 받고 있다.

교종본찰 봉선사(주지 초격)는 4월 13일 능엄승가대학원 부설 '봉선사 능엄전문학당' 1기를 개강하고 능엄승가대학원 학장 정원 스님을 강사로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 강의를 시작했다. 능엄전문학당은 스님들이 사찰 운영을 위한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에 사찰 정기법회와 교양대학, 불교대학, 기초교리강좌 등을 운영하는 토대가 되는 실질적인 강좌로 구성됐으며, 경내 운하당에서 매월 격주로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를 기획한 주지 초격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려는 스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정작 스님들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교육의 기회가 적어 재교육이 필요해도 강좌가 없다"며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종본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원장 스님과 상의한 끝에 '능엄전문학당'을 개설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스님은 "아는 것이 없으면 교만해진다는 〈잡보장경〉의 가르침대로 스님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만들고 배워야 한다"며 "능엄전문학당 역시 인재 불사의 일환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포교국장 보타 스님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시기에 모집공고를 낸 상황이라 강좌개설이 가능한 기준으로 10명이라도 수강생 모집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전했다. 1기생 중에는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보타스님 등 소임자 스님과 말사 스님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수강한 스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스님들은 "능엄전문학당이 지속돼 더욱 다양한 강의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오랜만에 초발심의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 봉선사 능엄전문학당의 1기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열심히 배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강좌는 매월 2, 4주 수요일 오후 2시 봉선사 운하당에서 열린다. 수강료는 매월 5만 원이다.

한편 〈석가여래행적송〉은 고려 충숙왕 15년(1328) 운묵 무기 스님이 석가여래의 일대기와 불교 전래의 역사를 상·하 2권으로 기록한 저술이다. 교재로 사용되는 우리말 〈석가여래행적송〉은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2004년에 펴냈다. 031-527-8568

용궁사 '제16회 사명연꽃 문화제' 봉행

5월 14일 경내 일원서 진행…요가 시연 등 눈길


제16회 사명연꽃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다.

'나의 꿈, 우리의 미래, 즐거운 시간'을 주제로 한 사명연꽃 문화제가 펼쳐졌다. 밀양 용궁사(주지 정무)는 5월 14일 경내에서 제16회 사명연꽃문화제를 봉행했다.

이번 사명연꽃문화제에는 용궁사 주지 정무 스님(동련 이사장),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 외 경남포교사단, 밀양불교대학, 용궁사 신도회, 전국 어린이 가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무 스님은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역사, 문화 체험행사 및 그리기와 글짓기 등을 통해 치유와 평화의 시간을 주고자 했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축사로 "우리 고장이 배출한 사명대사의 민족의식을 계승하는 행사"라며 "참석한 학생들이 자기표현 능력을 계발하고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리수요양병원 7년…1급 병원 쾌거

5월 18일 개원, 7주년 기념법회…"환자 중심 병원 되겠다"



보리수요양병원은 5월 18일 개원7주년 및 1등급 요양병원 성과를 자축하는 법회를 열었다.

보리수요양병원(이사장 현법)은 5월 18일, 병원 앞마당에서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2015년 개원 후, 재정 악화로 7개월만에 폐원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보리수요양병원은 2017년부터 점차 안정을 찾으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87.2점을 받으며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기념법회에서 이사장 현법 스님은 "보리수요양병원이 안정을 되찾고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임직원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사여래 원력이 녹아있는 깨끗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 '함께하는 병원' '환자중심의 병원'에 가치를 둔 병원 기조를 강조한 스님은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우수 간병인과 직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박은희, 문명란, 박은 간호사, 간병인, 조리실장 등에게 표창장과 함께 골드바 등이 수여됐다.

2015년 7월 개원한 보리수요양병원은 김포 용화사 경내 위치해 있다. 연면적 449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80병상을 갖추고 있다.

임은호 기자

참좋은우리절 베트남 관불법회 봉행

베트남 부처님 오신날 맞아 특별법회


베트남 불자들이 참좋은우리절에서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베트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베트남불자들을 위한 관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관불법회에는 참좋은 우리절 석현 스님, 수일 스님,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과 베트남 불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베트남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의 장기자랑에 이어 스님 모시기, 귀빈소개, 꽃 공양,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 한국스님 인사말, 참좋은우리절 신도대표 인사말, 스님 배웅, 베트남 스님 법문, 관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며 "부처님께서 혼탁한 세상에 오신 것을 찬탄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 장애 모두 잘 헤쳐나 갈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은 부처님 일대기를 설명하고, "베트남 불자들이 늘 부처님께 의지하며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이현진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법회를 보게 되어 기쁘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일 년에 한 번 있는 부처님오신날에 베트남 심동 스님의 베트남어 법문을 듣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본사는 5월 17일 동국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에 참여해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선본사, 지역미래불자장학 1천만원 쾌척

동국대 건학위 17일 전달식

갓바위 선본사(주지 혜안)가 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17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회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불자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갓바위 선본사는 한국의 어머니들이라면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한 번은 가는 영험한 기도 도량이다. 그런 도량에서 동국대에 장학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선본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10명의 불자 아들 딸들이 생긴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처가 생겼다. 특히 학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공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본사 주지 혜안 스님은 "지역 사찰과 연계해 10명의 미래 불자를 육성하는 장학제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기 전 장학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를 읽었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꿈이 담겨있었다. 앞으로 선본사는 학생들의 꿈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영험한 기도 도량인 선본사에서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향후 10년 내에는 모든 재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사회에 기여하고 누구나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